

아내

임낙중 (59년, 버지니아)

책이 나오면 아내가 읽어볼 줄 알고 있는데 아내를 나쁘게 평할 간이 큰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다. 그래서 위선(僞善)에 찬 글이 많고 이런 위선이 범람하기 때문에 솔직히 진실한 글을 마땅히 찾아보기 힘들다. 읽고 나서 참 솔직한 글이 몇이나 되는지 내 스스로 묻는다. 그러나 팔십이 넘은 내가 아내에게 아부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남녀동등의 세상이 된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내도 나를 비판할 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이 글을 쓰는 만큼 나는 될수록 거짓에서 멀어지고 싶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불출(不出) 이라고 했다. 못난 놈이라는 뜻이다. 남녀가 결합하면 죽음 외에는 둘을 떼어놓지 못하는 법 밑에 살았으니 아내 자랑은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 쉽고 따라서 아무리 아내가 훌륭하다 싶어도 자랑은 Waste of Time이 되기 쉬웠다. 입을 봉하는 자가 현명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 아내의 음식 솜씨나 기타 인품을 칭찬하는 미국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불출이들의 습관이라 여겼고 지금은 아내 칭찬은 금기사항을 깨는 느낌이 든다. 부부 결합이 둘에 색인 법 일진댄 구태여 아내 사랑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그런 곳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불출이로 보일 수 있으며 자기 아내를 칭찬한다는 것이 동양의 겸양지덕에 위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아내 칭찬이 아낙네들 사이에 시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웠다.

내 일생 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혼이 50% 가까이 치솟고 혼자 살겠다는 독신 찬미론도 공공 해졌으며 결혼하고도 아이도 갖지 않겠다는 여성도, 심지어 남성까지도 흔히 보게 되었다. 동성연애라면 숨겨 세상에 감추던 시대가 지났다. 동성애 간에 결혼이 허락된 주가 늘고 성경을 믿으면서 여자도 목사직을 가질 수 있는 교파가 늘고 있다. 책에서만 읽었던 원시시대에 있었다는 여권 중심 사회나 모계사회로 넘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사 형제를 두었는데 부엌

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지만 남은 아이들은 부엌일, 아이 키우는 일 등 내가 자랄 때는 여자들이 전담하던 일을 모두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 Bread Earner 노릇도 도맡아 한다. 이제 부끄러움 없는 나이에 이르렀으니 아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대가 겪은 과거와 21세기에 겪은 부부관계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글로 남기고 싶었다. 나는 어려서 부엌에 들어서면 어머니가 이놈 불알을 까겠다고 농담하실 만큼 부엌일은 나와 아내가 관계가 없는 여자들만의 일이었다는 것을 기록해둔다. 서두가 길어지고 글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내 개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써 내려갈까 한다. 너무 아내를 비판하면 내가 이조시대의 뒤떨어진 남편으로 그려질 것이고 아내를 칭찬하면 어느 서양문화를 따라가는 불출이가 될 판이니 그 정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써내려 가야겠다.

나는 의과대학을 1959년에 졸업하고 3년째 Kim's Plan 수련 중에 1962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Astonia 예식장에서 윤일선 총장님의 주례로 예식을 치렀는데 내가 만 27세, 아내는 만 22세였으니 지금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셈이다. 그 당시에 조금 빠른 편이었다. 나는 열 여섯 살에 Sex에 눈을 뗐으니 27세까지는 11년을 기다린 셈이다. 그러니 내 결혼이 빠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수련의 신분이니 경제적으로는 결혼할 자격이 못된 셈이고 여자를 보면 안고 싶은지가 11년이나 지났으니 결혼이 인위적으로 늦었다고 할 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늦었다는 말이다. 어른들이 장가가야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받는 돈으로 쌀 몇 말 값밖에 안 되니 속으로 내 형편에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그때 사회 구조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섹스를 무시한 채 사는 법을 배운 셈이다. 간혹 부잣집 색시를 거론할 때도 있었는데 처갓집 신세를 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속으로 장가가고 싶어서 앓고 있었다고나할까. 장가를 들어야 구멍 난 양말이라도 살림에 남는다느니 색시도 저 먹을 것을 타고 온다느니 하는 말을 귀가 창이 나도록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될대로 돼라 차마 산 사람의 목에 거미줄 치랴 하는 속담까지 가세하여 나를 괴롭혔고 결국 어른 말씀을 따라 나는 결혼을하기로 한 것이다. 못 이기는체하고 내 책임감을 잠시 잊었더니 내가 행복을 얻은 셈이다.

당시 레지던트 야간 개업이 성행했다. 대학 레지던트들이 병원 일이 끝나면 밤에 나가서 환자를 보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여 야간 개업을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런 부잣집 출신은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야간 개업을 했고 그 때문에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에 공부를 등한히 한 것도 사실이다. 미아리에서 야간 개업을 하고 있던 이년 선배 홍순원 선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삼 개월씩 파견 근무를 하던 홍성 도립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자기 야간 개업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내게 제의가 왔고 불감청(不敢請) 이언정고소원(固所願)이란 말 그대로다.

나도 야간 개업을 하고 싶어도 Kim's Plan으로 대학에 군위탁으로 수련을 받고 있어서 야간 개업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처지였다. 야간 개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홍 선배의 제의에 선뜻 응했고 수입과 비용을 제하고 반씩 나누는 식으로 홍 선배 야간 개업 의원으로 나갔다. 이 부수입 때문에 결혼해 볼 자신도 생겼다고 고백한다. 다음 해는 홍 선생이 대학병원 수련을 끝내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홍 선생이 같은 조건으로 첫 1년을 보아달라고 했고 나도 수입이 필요하여서 그 제의를 수락했다. 모두가 내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 덕택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할 방도가 생긴 것이다.

박충근 동기의 소개로 생약연구소에서 시험관을 닦고 있는 지금의 아내를 먼발치에서 처음 보았고 그 후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첫인상이 좋았다고 하겠다.

아내가 될 사람은 이화대학교 약학대학을 막 졸업하고 배우자를 구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보수로 생약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던 우 박사의 주선으로 연구소에서 무보수로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첫인상은 순진해 보였다. 처음으로 전화로 불러서 나오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몹시 떨렸다. 아마도 자신이 없었던 거다. 무슨 죄를 진 사람처럼 떨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우습다. 처음 데이트 교섭에 그렇게 떨었지만 그 후로는 쉬웠다. 대개 다음 데이트를 미리 약속하니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다. 인연이 되어 그랬는지 아내 될 사람은 내가 가자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잘 따라나왔다. 아무 말없이 잘 따라나오니 점차 책임감이 생겼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아직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수련이라고 결혼 못 할 이유를 하소연했다. 아내 될 사람은 서슴지 않고 그동안 약국을 차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의 소심함을 덜어주었다. 분명히 시집을 오겠다는 표시이다. 그렇게 구혼을 했다. 데이트는 주로 서울 근교에서 명승지와 왕릉 등이었고 식사는 하구 남강 등의 화식집 골목마다 있었던 중국집 그리고 한식은 우래옥, 한국회관에서 주로 했다. 아내의 거처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육교 옆 박 외과 병원이었고 일본 사람이 살던 3층 집을 수리해서 꾸민 집이었다. 당시 양동 변두리의 집이어서 근방에 가면 호객(呼客)하는 젊은 창녀들이 소매를 끌어당기던 그런 동네이기도 했다.

데이트 중에는 갇힌들이 겁이 났고 데이트하는 여자를 두고 나만 도망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흥기를 늘 주머니에 지니고 데이트를 했다. 생각해 보면 흥기를 쓸 기회가 없었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여서 나도 만용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랑감으로 나는 10남매의 장남이고 시누이가 일곱이라는 점이 약점이라고 느꼈고 대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의 강점이기도 했다고 스스로를 평했다.

결혼으로 골인하게 한 중요한 리드는 장모님이었다. 지금은 사라졌겠지만 서울역 앞 백마 다방이 우리 둘이 만나는 시발점이었고 그 집 커피를 많이 마셨다. 데이트를 시작한 것이 1961년 가을이었고 부모님이 선을 본 것이 62년 봄이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기어들어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마음에 드는 색시가 하나 생겼다고 부모님께 여쭙었다. 웬지 부끄럽고 두려워서 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퇴자를 놀까 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며칠 후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나와 함께 색시를 보러 가자고 하셨다. 아내와 장모 될 분이 함께 나와서 두 가족이 창경원에서 만나서 산책을 했다. 아내는 흰색 바탕에 노란 줄을 친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예뻐보였다. 부모님은 지체 없이 남대문에 있는 박 외과에 들어서 저희끼리 좋아하는 모양이니 기다릴 것이 있겠느냐면서 약혼 날짜와 장소를 잡았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처갓집에서는 좀 당황했겠지만 원래 아버지는 그런 일에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사실 나와 아내가 우리끼리 결정을 하기 전이라 당황했지만 어른들이 서두르시니 얼떨결에

따라 갔다고나 할까. 결혼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밀려서 장가가는 기분이었다. 아내에게 정식 청혼하기 전이었다. 삼부 다이아 약혼반지도 아버지가 마련했고 장모 되실 분이 손수 나를 데려가 양복도 맞추었다. 무척 황송했던 기분만 기억에 남는다. 예식장, 신혼여행 예약도 나는 통지만 받았고 심지어 온양행 기차표도 예약해서 샀다고 나에게 알렸다. 나는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다고 기억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주례로 윤일선 박사님을 정했다. 그 일도 장인어른이 직접 교섭했고 나는 통지만 받았다. 나는 물 위에 둥둥 밀려가는 기분이었는데 철이 없었다고 할지 너무 모른다고 할지 그런 심정이었다.

그때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그런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단지 흥분한 채로 결혼식을 올렸고 온양행 기차를 탔으며 신부화장을 한 아내를 쳐다보니 저 예쁜 처녀가 내 색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윤일선 박사가 한 주례사는 전혀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온천 호텔방에 들어서자 나는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려 방을 어둡게 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부터 안았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아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철이 없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평범한 대답이었다. 신부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줄로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답이 정답인 것 같다.

내가 결혼한 해는 Kim's Plan으로 외과 1년 Residency를 끝내고 심지를 뽑아서 정형외과 한문식 선생님 밑으로 들어간 해다. 한문식 선생님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1943년에 졸업하신 분으로 생화학의 이진순 선생님, 비뇨기과의 주근원 선생님과 동기이시다. 고향이 경상북도 대구이고 학생 때 육상 선수였으며 수재로 이미 명성을 날렸는데 나도 그분 밑에서 그분의 인품을 익혔고 그분을 무척 존경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분을 뵈는다.

온양 온천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곧 대전으로 내려가 폐백과 신혼 잔치를 치렀다. 구식으로 잔치를 더 하고 싶으신 부모님의 희망 대로 잔치를 한 번 더 치른 것이다. 잔치가 끝나고 한 번 더 부모님과 지현이 동생과 일행이 되어 부여를 거친 신혼여행을 또 다녀왔다. 아내가 여행 중에 자꾸 메스껍다고 나에게 원인을 물었

지만 설마 임신 구토증은 아니라고 묵살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을 했고 모두들 나를 의심했다. 큰 아이를 신혼 초에 임신한 것이다. 그리고 임신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아내는 결혼에 대한 공부 없이 시집을 왔지만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 문안을 드렸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모든 것을 웃어넘기셨다. 시어머니 노릇을 할 것이라고 행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직 사랑으로 감싸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부간의 갈등을 전혀 몰랐던 젊은 나는 행운아였다. 어머니는 전혀 신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아들에 대한 절대적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 안아 주셨던 것이다.

서울로 돌아와 홍 선생님의 야간개업을 맡았고 홍선생이 사 놓은 집에서 방 하나와 부엌을 빌려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신혼시절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 홍선생 내외분의 덕으로 알고 있다. 그 빚을 살아서 다 갚을 길이 없으니 다음 세상에서라도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내가 해온 양복장이 방을 덩그렇게 차지했고 남은 공간은 둘이 겨우 잘만했다. 신혼살림이라야 전혀 소꿉장난 같아서 결혼 전에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던 아내의 손으로 만든 찬과 밥이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맛이 있고 매사가 다 즐거웠다.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시집을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 하루는 새벽에 누군가 장지문을 노크하기에 얼른 잠옷을 걸치고 문을 열으니 대전에 계셔야 하는 아버님이 서 계셨다. 대전역에서 저녁에 떠나는 완행열차를 타면 연착이 안 되면 서울역까지 여덟 시간, 연착이 되면 열 시간 보통 걸리는데 그것을 타고 밤을 새워가며 미아리까지 오신 것이다. 그 이유는 꿈자리가 사나워서 우리가 걱정이 되셨다고 말문을 여셨다. 실은 신접살이를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었다. 아버님이 1908년생이시니 54세가 되신 해였다. 잠이 적으신 지라 새며느리가 보고싶어서 밤새 오신 것이다. 여든을 훨씬 넘은 내가 지금 생각하니 그때 아버님은 참 젊으셨다. 아내는 급히 이부자리를 방구석에 밀어놓고 온돌방 난방으로 집어넣었던 구공탄을 꺼내어 부채질을 하여서 불들을 새 구공탄으로 옮기고 밥을 지었다. 찬이라야 집 앞 찬가게 급히 가서 두부를 사서 된장을 끓여서 3층이 된 밥과 함께 상에 올렸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하시고 아침진지를 다 드셨는데 대단히 흡족해하셨다. 며느리

가 차린 상이니 불평을 하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십구공탄을 구공탄이라고 불렀고 밥을 짓거나 찬을 만들지 않을 때는 아궁이로 구공탄을 옮겨서 온돌을 따뜻하게 했다. 아침이면 구공탄을 꺼내서 불을 지피어 새 구공탄을 피워서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으니 그때는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난방과 취사의 임무를 구공탄이 맡았다. 가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 나가기도 하고 나도 가스 중독으로 몇 번 고생을 했는데 오늘 살아있는 것이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평일에는 대개 저녁 6시부터 환자를 보았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던 11시 반이면 대충 진료를 끝내고 약 100미터 떨어진 신흔살림방으로 향했다. 14살 먹은 여자 아이가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있어서 나를 도왔고 지금 생각하니 내가 간도 크다 하겠다. 개복하는 큰 수술도 한 달에 다섯 건 이상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해냈다. 그때만 해도 미아리는 시골 변두리라 자궁 외 임신이 많았고 내가 그 생명을 구했다. 혈압이 재 지지도 않는 쇼크에 빠진 여자들을 살려냈고 다행히 내 야간개업 중에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하늘이 도우신 것으로 믿는다. 죽어나간 환자가 없으니 행운이었다. 수술기구나 방포는 모두 삶아서 썼고 마취도 급하면 내가 직접 마취로 했으니 의료사고를 안 낸 것이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살린 목숨들이 나를 지켜주었는지도 모른다.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려고 했으면 차가운 시체로 변했을 여성들도 내가 구했으니 그분들을 구제한 나의 KARMA 가 나를 구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 주말은 아침부터 그 의원을 지켰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중국음식점이 하나가 있었고 외출할 차도 없었으니 결혼 후는 외식이래야 그 중국집에서 우동이나 짜장면을 시켜서 먹은 것이 고작이었는데 배달이 온 것을 집에 가서 먹었다. 그때 내 수입으로는 그 정도 외식으로 마음이 행복했다. 지금도 가끔 그때 먹던 우동이 생각난다. 그때 우동이 참 맛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못살던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5.16 군사혁명도 그곳에서 맞이했다. 큰 아이가 속도 위반으로 생긴 아이라고 나를 놀려대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야말로 Honey Moon Baby였다. 데이트 시에 돈암동에 사는 둘째 여동생이 방을 여러 번 빌려주었는데 나는 결코 sex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내가 완강히 거절했던 것이다. 아니 내 근접수법이 부족해서 인지 아내의 순결을 지킨 것이다. 큰아이는 신흔 초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 아내

가 자기의 임신여부를 신혼 때 물었을 때 부인한 것은 무식의 소치였다. 어느덧 아내의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었다. 배가 불러도 나는 sex를 참지 못하고 지냈다. 2월 19일 큰아이가 출생하는 날인데 그 날도 아내를 건드렸다. 그 후 한시간이 지나서부터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불규칙하기에 나는 초산이라 시간이 걸리겠다고 예측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철이 없는 아빠라고 나를 질책했다. 결국 깨닫고 대학병원에 늦겠다고 전화를 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내를 데리고 처가인 박 외과 병원으로 향했다. 곧 산파를 불렀고 낮 두 시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신비롭다는 생각이 압도했다. 기쁘다는 생각이 다음이고 엄숙한 책임감을 느꼈다. 어리둥절한 나에게 아내는 첫마디가 고통스러운 진통의 책임자인 내가 밉다는 것이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Kim's Plan을 따라서 4월에 군의학교에 입학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 헤어졌다. 그때 서울역에서 떠났다. 훈련이 진행되고 3주만에 첫 외출이 허락되었다. 아내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젓먹이를 데리고 군의학교가 있는 마산까지 오는 것이 무리라고 했다. 철없는 나는 실망하여 전화에 대고 말을 퍼붓고 끊었다. 당시 마산까지는 직행이 없는 먼 거리이고 14시간이상 걸렸다. 그러다가 면회가 되는 날이 되어 나는 외출을 나와서 어느 하숙집 하교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군의학교 친구가 나를 찾아내어 아내의 일행에게 알려준 것이다. 내 전화를 받고 섭섭해하던 나를 위하여 옆에서 지켜보시던 아버님이 젊은 며느리가 혼자서 젓먹이를 데리고 혼자서 가도록 하실 수 없어서 같이 따라오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사랑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아내에게 달려가서 아내를 안았다. 불효자식이 따로 없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젓먹이 아이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철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날 저녁때에 귀대해야 했다.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었고 곁에 누워있는 큰 아이를 볼 시간이 없었다. 귀대할 때까지 아내만을 안고 있었으니 평소에 엄하시던 아버지 눈에 얼마나 철이 없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두고두고 부끄러웠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때 영상이 내 머리 속에 두고두고 재연되는 것은 나만이 아는 사실이다. 그날 나는 뛰어서 귀대했다. 몇몇 후보생들이 지각을 했기 때문에 전 후보

생들이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훈련 중에 주로 먹은 것이 콩나물국인데 무슨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운동장을 구보로 뛰고 기운이 펄펄 났다. 날개가 달린듯이 달렸다. 생리학에서 ATP가 무엇인지 배웠지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도 배웠다. 그러나 젊음이란 요소가 인간의 활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몰랐다. 젊음의 샘솟는 끊임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는 군의학교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나는 성적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수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시험을 치르는 요령이 좋았던 모양이다. 그 덕분에 제1사단 의무중대 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국군 사단 중에서 제1등 사단이다. 철원 북방에 배치되었고 그 사단 뒤에 의무중대가 있었으며 약 2km 떨어진 곳에 운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서 양공주들이 있었고 공중목욕탕도 있었다.

사단 의무중대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방으로 나갔으니 만약에 전쟁이라도 났으면 난처했을 것이다. 전투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의무중대를 인도해야 하는지 그 실제 행동에 대하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사단의 참모회의에서는 의무참모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할 터이니 우선 걱정말고 편히 쉬라고 하였으나 나는 속으로는 플랜을 알고 싶었다. 의무 중대장실은 흙벽으로 지어서 당번 사병이 난방을 잘 살피고 있었고 지붕은 초가 지붕이었다. 당번 병사가 내 군화를 항상 반짝반짝 거리게 닦아놓았다. 밤에는 동네의 민가에서 방을 빌려서 잤는데 방세가 무척 쌌다. 한 달에 칠백 원이었다. 주말이면 운천으로 나가서 목욕을 했고 식사는 부대안에서 했고 나는 중대장이라도 국 한 가지, 찬 한 가지이고 지금의 군인들처럼 호의호식은 생각하지 못했다. 찬은 주로 배추김치였고 배추가 설어서 겉절이 같았다. 집에서 고추장이나 장아찌 등을 가져다가 밑반찬으로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대원 몇 명과 같이 회식을 하기도 했다. 경비 는 의무중대 군의관들이 항생제를 가라 처방을 내서 돈으로 마련하였다. 중대장인 나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처리했다. 특무대에서도 그 정도 비리는 눈감아 주었다. 그래도 조사가 나올까 보아 전전긍긍했지만 기우였던 같다. 사단장은 윤 소장이었는데 대위였던 나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보였고 주위에서는 모두가 별 별 떠니 나도 함께 떨어졌다. 북한의 김정은이 태양 노릇을 하는 꼴을 보니 이해가

가는 장면이다. 일단 어느 제도에 속하면 인간은 정말 무력한 개미떼가 된다는 이야기다. 사단의 의무참모는 내가 윤 사단장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다. 그래서 사단본부에 가는 것을 삼가 했다. 서울에서 아는 분이 많아서 그와 친분을 트면 친할 수도 있었는데 접촉을 삼가 하면서 남아서 바둑을 두고 지냈다. 의무참모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잘 알아서 할 터이니 하니 결국 나는 사단내의 움직임에는 갇혔다. 의약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뇌물을 요소요소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모르고 지냈다. 그렇게 3년 복무를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사단내의 차량의 40%만이 움직일 수 있었고 나머지 차량은 검열기간만 다른 부대에서 장비를 빌려다가 장식품으로, 검열용으로 꾸어다 놓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단이 다 그랬었다. 군의 부패상을 알만했고 그것이 그때는 정상이었다. 요즘은 한국군대가 달라졌으라 믿는다. 군의 대우가 팔목할 만큼 좋아져서 내가 근무할 때처럼 군장비를 내다 팔 필요가 없으리라 믿는다. 근래에 국방부에서 방위산업을 맡은 장군들이 부정으로 가끔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해군 함정에 장치한 Sonar 탐지기를 옛날 고기잡이 배에 쓰던 장비로 대체했다는 기사를 읽은 지도 얼마 안되니... 이때만은 인권이고 뭐고 목살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처럼 직결 포살하는 것이 방지에 효과적이 아닐까? 민주주의, 인권주의라는 법치국가인 것이 오히려 처벌을 경하게 하여 나쁜 결과를 나타낸 것일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군의 정신상태가 걱정스럽다. 주적 관점이 흔들린다니 막상 전쟁이 나면 얼마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육이오 사변 시에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읽어보니 굶주린 우리의 국군 사병들은 애국심만은 투철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좌파나 중도파가 아닌 애국 병사들이었다. 새 대통령이 복무 기간을 1년 8개월로 줄었다니 그것도 걱정이다. 나는 전에 미국 군대를 격하하여 평한 일이 있었다. 대전 근교에서만 딴 소장이 이끌던 2사단이 궤멸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전에 일제 때에는 대 본영 선전에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으로 온 후 2차대전을 위시한 미군의 역사를 배우고 나니 미군이 그렇게 약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선이 무너지는 예는 드물다. 물론 베트남 전쟁 때는 병사들 간에 약물중독이 만연하여 형편이 없었지만 그 전쟁 목적이 불투명했고 미군 지도부조차 왜 싸우는지 몰랐던 전쟁이었으니 사기가 저하됐던 것이다. 또한 미군 개개인이 평소에 상무정신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세계의 어느 군인보다 전투력이 강하다.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는데 하루는 사단장이 좀 만나자고 전갈이 왔다. 내가 사단장 실로 들어서니 기가 죽어 고개를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그날 사단장은 자기 부인이 아프니 서울로 가서 자기 부인을 돌보고 오라는 명령을 한다. 무조건 “네” 했지만 속으로 기뻐했다. 나는 의무중대 Jeep 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는 기회가 생겨서 기쁨에 들떠 있었다. 운전병이 어떻게 서울로 가는 외출증을 끊어 왔는지 알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마침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했다. 작은 Jeep 차로 강을 건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으나 사단장의 명령이고 나는 아내를 만날 생각으로 강물로 차를 몰라고 일렀다. 강물 속으로 차가 들어가더니 어럽쇼 어느덧 강물로 차가 떠내려갔고 나와 운전병은 살려고 차를 버리고 강물로 뛰어내렸다. 그 후 어떻게 육지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떠내려간 차는 언덕에 좌초되었고 운전병과 나는 백사장에 올라섰다. 차를 떠내려 보내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걱정했고 물에 잠수된 Jeep 차를 건져낼 방안을 궁리했다. 운전병이 근처의 마을로 가서 장정 십여 명과 밧줄을 구해왔다. 차를 구한 다음 나는 지갑을 털어서 그들에게 막걸리를 샀다. 몸은 흠뻑 젖었지만 다시 시동을 걸어서 아내가 있는 처가에 도착하니 밤 12시가 넘었다. 젖은 군복을 벗어 말리고 아내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젊었기 때문에 우리는 Jeep 차를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 운이 좋았기도 하다. 강물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일생에 여러 번 위기를 겪었는데 의무중대장 시절 이렇게 북한강을 장마철에 건넜던 것도 그중 하나이다. 더 큰 사고를 용케 면했던 것이다. 최전방에서 반년을 보내고 나는 서울의 창동 제7 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보임되었다. Kim's Plan으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았다. 얼마 전에 그 창동에 들렀더니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옛 모습은 없어졌다.

대위 봉급으로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었다고 생각한다. 도봉산 밑자락에 농가 한 채를 빌려서 살았는데 봄이 되면 집을 둘러싸고 개나리 울타리가 꽃이 만발하여 온 천지가 노랗게 덮였다. 그 그리운 모습이 추억 속에 남아있다. 마치 춘희가 Alfred와 함께 파리의 교회에서 행복을 노래하던 낙원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 집에는 따로 샘터가 있어서 시원한 물도 마셨고 겨울에는 땅에 묻은 독에서 동치미를 떼서 국수를 말아먹던 그 재미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1년이 채 못되어서 경주의 제18 육군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군 정형외과 수련을 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정형외과 레지던트는 세 명인데 그들을 가르치고 원장은 김병극 대령으로 마침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그 김 원장을 위하여 독일어 선생 노릇도 했다. 내가 독일어 선생이었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었을 것이다. 그 일 년간은 아내와 떨어져서 살았다.

아내는 대전역 뒤의 굴다리를 지나서 동천 약국이라는 약국을 셋째 여동생의 소개로 맡아서 경영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주말에 대전으로 찾아갔다. 이 일 년 동안에 아내는 둘째 아이까지 낳아서 길렀으며 셋째를 임신하면서 혼자서 약국을 경영하였다. 그때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아내는 내게도 아무 불평도 없었다. 그 아내의 참을성은 내가 배우고 배워도 모자란다고 하겠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때 나는 경주에서 무척 자유로웠고 선배 김병극 원장님 덕분에 대접을 잘 받았고 BOQ 장교 숙소 생활을 했으니 나 혼자만 호강을 한 셈이다. 군대 생활의 마지막 반년을 대전의 63병원에서 근무했다. 진료부장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까지 도달했는데 이 기간에는 아내를 돕기도 했다. 아침저녁으로 더운물도 끓이기도 했고 약국도 팔았다. 그 돈과 아버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하여 홍릉에 이층집을 구입하였다. 이 무렵 군에서 제대하고 나는 미군 노무자 병원에 취직했다. 이때 우리 집에서 남동생 둘이 대학을 다녔다. 당시 나는 대학에 남을 희망이 없다고 느끼자 1967년에 아내와 식구를 남겨놓고 혼자서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와서 인턴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용단이다. 내 판단에는 그때 한국에서는 가망이 없었다고 느꼈다. 아내는 반 년 후에 3형제를 데리고 이민을 왔다. 다섯 살, 세 살, 한 살 반 세 놈을 데리고 오느라고 무진 고생을 다했다. 한 놈을 끌어다 놓으면 다른 놈이 뛰쳐 나갔다. 세 아이가 모두 어미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었다. 짐짝도 많은데 손은 둘이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때도 아내에게 죄를 진 셈이다. 막내가 1살이고 계속 업어달라고 하는데 어미의 모성애가 아니면 도저히 이론상 혼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 아내의 생각을 하면 후일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는다.

먼저 내가 와서 바쁜 인턴생활을 하면서 틈을 내어서 가족이 있는 셋집으로 보러 다녔다. 여성 심리에 어두운 나는 Baltimore의 Calvert가의 천정이 높은 구식 돌 집을 보고 내 맘에 들어서 구해 놓았더니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돌로 지은 구식 건물이 싫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Slum가가 있는 것을 몰랐고 천정이 높은 구식 집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몰랐다. 결국 두 달 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 아내가 만족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새 차를 사야 하는데 \$500을 주고 중고차를 샀더니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결국 처분하고 말았다. 내가 미국 생활에 서툰 짓만 하여 핀잔을 받았다. 아내의 당연한 불평에 내가 졌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8년이 늦었는데 나이 탓인지 모든 동작이 느리고 눈치도 빠르지 못하여 아내는 속으로 답답했으리라.

정형외과 Residency 자리를 구할 때도 나는 게으름을 피웠다. 자리를 구하기가 쉬울 줄 알고 오산했다. 내 경력을 믿고 몇 군데만 원서를 냈다. 미국 병원에서는 내 경력을 보고 놀라서 오라고 할 줄 알았다. 정말로 사정을 모른 태도이다. 봄까지 기다리다가 어이구 늦었구나 내 과오를 깨달았다. 직접 전화를 해보았더니 모두 이미 자리가 찼다고 했다. 젊은 후배들은 자리를 잘도 구했다. 이렇게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남편을 따라다니는 아내에게 나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뉴욕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에도 그랬다. 주말에 낯선 도시에서 서툰 영어로 큰 건물을 뒤졌다. 사내아이가 셋이 딸렸다니 모두들 사절이다. 몇 시간을 익숙하지 않은 골목을 누볐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했다. 아이가 둘이라고 속여도 됐을 것이다. 뉴욕에서는 아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우선 식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아내의 운전을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바쁜 내 일정 때문에 이 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말이라야 가능했다. 백화점 주차장에 아침 일찍 나가서 운전을 가르쳤다. 내 성

질이 급하여 말을 함부로 내뱉는 습관 때문에 아내를 욕박지르고 아내는 더욱 떨어져 차분하게 운전을 배우지 못했다. 몇 달 동안 내가 고생을 했다. 포기하고 아내는 운전 학교를 다니면서 운전을 배웠다. 이제는 오히려 내 운전이 서투르다고 핀잔이다. 운전을 배울 때 나한테서 받은 수모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다가 내게 갚는다. 어떤 것은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어낸 것이 아닌지 알 도리가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겠다. 누구는 그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한다던데 아내는 울면서도 잘 참아주었다.

뉴저지의 어느 이태리 목수가 사는 집 이층을 간신히 빌렸다. 아내는 아래층에 사는 그 집 여주인에게서 영어회화를 배웠고 미국 생활을 익혔다. 차가 한 대뿐 이어서 이틀에 한 번 아내는 나를 차에 태워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새벽에 나의 출근을 시켰고 내가 하루 당직을 하고 나면 다음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했다. 그래야만 아내가 낮에 차를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아내는 빨래방도 가고 식료품 쇼핑도 했다. 내가 정형외과 수련을 마칠 때까지 아내는 삼 년 간 나를 실어 날랐고 아이들의 수발도 했다. 그때 아내는 젊어서 그런 고역을 견디어 냈다. 아내가 나보다 운전을 잘 하는 이유도 그때 뉴욕 시내를 누비던 그 경험 때문일 것이다. 살던 집이 이층이었는데 시끄럽다고 아래층에서 빗자루로 두들기기도 했지만 4형제가 탈 없이 자랐으니 지금 와서 불만은 없다. 이렇게 뉴저지 포트리의 Abbott Street은 그때 정든 거리다. 제3의 고향이기도 하다.

나는 나이도 많은지라 가족 부양이 첫 임무라고 여겼고 수련이 끝나자 개업을 택했다. 그래서 Maryland Harford County에 정착했다. 내가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가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미국에 눌러 앉았다. 그래서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수련의를 마쳤을 때 우리 수중에는 여섯 식구의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다. 이렇게 딸린 식구가 다섯이나 되니 쉽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싶다. 눈 깜작할 사이에 아버님도 연로하셨다. 지하에 계신 부모님도 내가 겪은 고민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내 판단이 옳았던지 말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망동과 획책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한국을 보니 미국에 남았다는 나의 결정이 옳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내 행위는 내가 배운 동양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나 감히 서양 풍조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 Baltimore 옆 Harford 카운티에서 개업을 시작해서 27년 동안 환자를 보았다. 아내는 나를 지성껏 보살폈고 자식들을 길렀다. 모두 잘 자랐고 좋은 짝을 만났으니 더 바라는 것이 없다. 내가 세 차례나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아내는 나를 믿고 응원해 주었다. 실제로 내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 일어난 의료사고가 아니고 성심껏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나빴던 경우이고 환자와 의료사고 변호사가 돈을 목적으로 나를 고소한 경우들이다.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환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하고 나니 65세가 된 무렵이고 더 이상 환자를 보기가 싫어져서 나는 개업을 접고 은퇴했다. 은퇴 후 그 다음 해에 직장암으로 고생했다.

아내의 근면 절약으로 4형제가 모두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 그 공로는 모두 아내에게 돌린다. 등록금을 대준 것 이외는 아비로서 별로 한일이 없으니 나이를 더 할수록 후회스럽다. 아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투자를 잘못된 경험도 많았다. 한때는 Limited Partnership으로 열 세 개나 샀는데 그 중에 성공한 투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 내가 브로커들에게 멍청이로 보였을 것이다. 한때는 내가 직접 증권을 거래했는데 수년 후에 처분하고 나니 Long term Loss가 팔십만 불이었다. 돈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좇아서서는 안 된다. 그 후로는 나는 재물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아예 돈 벌 생각을 포기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은행에 그냥 맡겨두는 것만 못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아내는 받아들이고 집안의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데 취미를 붙여 정원에 묻혀서 산다.

2003년 9월 27일 친구 이태영 의사 내외분을 메릴랜드 카운티 클럽에서 골프를 초대해서 쳤다. 마침 비가 온 후라 아내가 물던 골프 카드가 물이 고인 웅덩이를 쳤고 흙탕물이 튀었고 아내의 바지를 더럽혔고 아내는 더러워진 바짓가랑이에 정신을 팔았으며 그 순간 골프 카트가 16번 홀 그린 근처에 박힌 말뚝을 쳤다. 아내는 공중으로 뿔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대퇴골의 Neck이 부러졌다. 나는 곧 Hip

Fracture인 것을 알았고 Dr. Kang 이 마취를 하고 Dr. Omara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내가 정형외과를 전공하여 아내가 덕을 본 셈이다.

Hip Fracture는 수술이 잘 되어도 치료 후 정상으로 기능이 돌아올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환자의 반은 결국 Walker나 지팡이를 짚게 된다. 이때 아내의 나이가 65세였고 결혼 41년 만에 나와 아내가 큰 재앙을 겪은 것이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심정으로 지성으로 간호를 했다. 아내가 수개월 후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는데 간혹 왼쪽 hip에 핀을 박은 자리가 아프다고 한다. 마찰로 생긴 bursitis이라고 내 나름으로 진단을 내린다. 최근의 X-ray 로 보면 left hip 골절은 다 잘 아물었으나 그 관절에 osteo-arthritis 변화가 조금 있고 joint space는 괜찮게 보였다. 금년 봄에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프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며 절었다. 내가 진찰해 보니 left ankle dorsiflexion이 오는 쪽보다 약하고 전체로 왼쪽 다리에 muscle atrophy가 약간 있었다. straight raising은 정상이었다. 나를 못 믿어서 그런지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pain clinic을 다녀와서 물리요법을 받고 있다. 진단명은 spinal stenosis인데 아내가 나를 믿든 아니 믿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빌고 있다. 가끔 잘못된 자세로 과로를 저지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정도로 진료에 참견한다. Lake Land, 플로리다에서 수중 물리치료를 스스로 했고 황 선생의 일본식 relaxation 요법도 받았다. 아내의 허리 아픈 병은 나이 탓으로 생긴 spinal stenosis이겠지만 직접 아프기 시작한 것은 gardening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정원 일은 거의 유일한 취미여서 조금만 견딜만하면 마당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말릴 수도 없다. 아내에게 gardening은 종교가 되었다. 4형제 중 3형제는 산파의 도움으로 낳았고 막내 아이도 자연분만을 했으니 그 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가 아닌가. 평생 골골하고 병마 속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으니 불평을 말아야겠다고 누누이 내게 다짐한다.

노년에 그런 병든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1년쯤 폐결핵을 앓았다. 지금도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숨이 가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이외에는 대단히 건강한 편이다. 장모님은 간경화증으로 장수를 못하셨지만 장인은 구십 칠 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치마만 둘렀으면 맥을 못 추는 남자라고 나를 놀리곤 하며 건강하셨으니 아내도 유전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겠다.

젊어서는 아내가 cystitis로 자주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cystitis의 원인이 내게 있으니 아는 병이니 나이가 들어서 성생활을 줄이니 그 발병도 줄었다. 또 아내는 치질로 중년 후에는 가끔 고생하지만 수술을 되도록 피해왔다. 아내는 내게는 차분한 색시였다. 지금도 가끔 소리를 지르고 허세를 부리지만 아내는 인격적으로 나보다 못한 점이 없다. 오히려 내가 배울 점이 많다. 나는 어머니를 닮았는지 화가 나면 흔한 한국의 욕부터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아내는 화가 나도 욕을 할 줄 모른다. 욕이 인격을 대표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나는 욕을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나오는 것 같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나는 세 명의 여성을 짝사랑처럼 했다. 물론 자랑도 아니고 내 성격도 여자에게 약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주위에 있던 모든 여성은 짝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지금 이 사실을 안 아내가 치마만 둘렀으면 맥을 못 추는 남자라고 나를 놀리곤 한다. 아내 말대로 여자에게 약했던지 보통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 말은 들었어도 짝사랑이 세 명이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세 명이 모두 훌륭한 여성이었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그들보다 좀 더 훌륭한 내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한다. 여성 찬미론 자라고 해도 좋다.

내가 은퇴하고 집에서 24시간 붙어있고 아내도 이젠 남편이란 자가 자기를 어찌 하라 싶었는지 점점 본 성격이 드러났고 요즈음 유행하는 줄혼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마 그렇다고 줄혼은 아니고 이혼과 유사한 형태의 모 부부를 줄혼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부부의 정은 없어졌지만 이혼 대신 평화공존의 상태를 유지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형태로 탈바꿈하는 결혼을 의미한다고 나는 정리한다. 배우자에 대한 젊었을 때의 애정은 핏속에 도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나이 들어 성호르몬이 바닥이 난 다음에도 젊은 때와 같은 열정적인 애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성호르몬

의 저하로 생기는 애정표현의 결핍에 불만이 생기고 애정이 다른 이성에게 옮겨갔는지는 의문을 갖게 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관심 내지 적대관계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즈음처럼 이혼이 쉬워지고 이혼이란 용어 자체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아닌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혼이란 용어가 어느 부부간이든 한 번쯤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이혼이란 단어를 흔히 내 뱉는 부부도 많다. 나이 칠십 전후가 되면 부부간의 성관계도 줄어들고 한 번 싸우고 다투고 나면 전처럼 풀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고운 티가 없어져 적대관계가 되기 쉽고 성격의 나쁜 점을 더 겪고 나면 상대방 인간 전체에 증오심이 생겨 쉽게 풀어날 실마리가 없다. 소원해지는 부부 관계가 실은 늙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람들은 그 간단한 원인을 잊고 모든 원인을 배우자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운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몸동작이 차츰 느려지고 보기에다 추해진 늙은이들이 자기 모양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추한 모양만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의 좌절감을 상대방에게 퍼부으니 견딜 사람이 없다.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같이 한집에서 사는 배우자를 도울 마음이나 몸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평소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올리는 분들 중에도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돕는데 자기 몸을 아끼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귀찮아도 늙고 병든 배우자를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수 있으랴 하는 일념으로 돕는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편집자주>

임낙중 선배님이 가늘고 깨끗한 육필로 쓰신 73면의 원고이다. 2023년 9월에 작고하시기 전 쓴 이 방대한 양의 원고 책을 사모님께서 이틀(15일) 전에 버지니아 신년모임 때에 갖고 오셨다. 독자들도 잘 기억하시다시피 임 선배님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수필을 시계탑에 올렸고 수필집을 여러 권 발간하셨던 분이다. 유고집같은 이 귀한 글을 찾아서 손수 가지고 오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선배님은 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의대를 1959년 졸업하신 분이며 정형외과 수련과정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받고 도미 후에는 전문의로 메릴랜드에서 개업하시다가 은퇴 후에 버지니아 주로 5-6년 전에 이사를 오셨다. 이 도시 근교 에는 현재 20여 명의 서울의대 동문들이 사시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의대 동창회 본부 사무실도 여기에 있다.

임 치과를 개업하시던 선배님의 아버님은 충청남도 대전에서 명의로 유명하신 분이였다. 대전에서 원동 국민학교를 다녔던 저도 9살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분한테서 치료를 받던 생각이 난다. 헤드라이트인지, 반사경인지를 쓰시고 나에게 대한 치료를 끝내시고 내가 참을성이 많은 어린이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이 72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난다. 1953년경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점점 힘든 배우자의 딱한 사정보다 왜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지 하면서 배우자를 원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교회는 그동안 헛나간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아내가 남편이 짜증스럽기만 한 짐이 아니고 내 심정을 바쳐서 봉사할 하나님의 내 사역이라고 받아들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가 몇 사람이 되겠는가. 나이가 들면 아이들은 엄마 편이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일부이니 샘을 내서는 안 된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남자들이 샘을 내고 섭섭하게 생각한다. 유교에서는 효라는 법으로 인간을 세뇌하였지만 만민이 평등하다는 미국에서 효를 붙들고 한탄만 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옛날 여자들은 젊어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 집안의 살림을 좌지우지하였던 시대가 있었다. 그때 남편은 사랑방에 법으로 모셨었다. 부부유별 부창부수는 그 생각이 옳았든지 말았든지 간에 한국이나 미국의 현 사회에서는 사라져 간 원칙이고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약자라는 법칙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해도 재산의 권리가 여자에게 반이 있고 재산의 권리가 있는 한 남편에게 구매받으며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나는 인정한다. 심지어 결혼을 한몫 챙기려는 수단으로 삼는 여성도 생겼고 결혼으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여성도 생겼다. 돈이 많은 노년의 독신 남성의 간병인 노릇을 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들의 아내로 지위를 굳히고 재산을 차지하는 사건도 신문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정직하고 진실한 간병인을 먹칠하는 이런 사회의 나쁜 인간들 때문에 간병인의 이름은 옛날처럼 존경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슬픈 사실이다. 이제 나이 든 남자들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처럼 주는 대로 받아먹고 꼬리를 흔들기

전에는 사나운 여편네의 시중이나 들게 생겼다. 남자들이 바둑이처럼 이삿짐 실은 차에 먼저 올라가 앉는다는 말까지 생겼다. 반대로 옛날처럼 여자가 남편의 시중을 잘 들어 현모양처 노릇을 하면 노예로 격하하여 바라보는 그런 견해도 생겼다. 전에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부부간이 깨어지지 않는 수도 있었다. 자식들이 부부간의 끈이 되어준 것이다. 삼중지도 또는 삼중이의라 하여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으로는 아들을 좇으라는 가르침이 있는 만큼 아들의 위치가 컸으므로 함부로 재혼을 못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못한다는 사람도 결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어려서부터 집안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가문을 숭상한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 개인의 인격 인생관 종교 등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겠다. 그런 못된 남자와 어찌 같이 살겠느냐 빨리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오라는 친정 부모도 많아졌지만 내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출가외인이니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이라고 자기 딸을 시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친정 부모의 도리였다. 시대가 정말 변한 것이다. 호주 제도로 바뀌었고 출가외인이라고 문전 박대를 할 부모도 없겠다. 딸도 자식이라 아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친정 부모도 많은 줄로 나는 안다.

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을 남기겠다면 예를 들면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방면에 내가 가진 재능을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결혼생활에서 자유로워지겠다면 안 된다고 그 앞을 막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재능이 없으면서 그런 재능이 자기에게 있다고 아내가 착각하고 결혼생활만 망치는 경우가 있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미리부터 그런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포기하고 배우자의 성공에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으니 나처럼 그런 아내를 가진 사람은 아내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구습의 잔재 속에서 성공도 못한 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일생을 걸렀는데도 별빛을 보지 못하고 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자기 개인의 모든 능력을 배우자의 성취에 희생해도 그 배우자가 흔적도 없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인류의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큼 등불을 켜 인물은 귀하고 드무니 너무 애석할 것도 없다. 대부분의 인생은 결혼하여 자식을 잘 키워 인류 문화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기본 책무를 다했다고 본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도 다하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내는 골프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방면에 재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재능은 동네 아주머니끼리라면 몰라도 하나의 취미로서 돋보일 재능일 뿐 잘해야 LPGA에 나가거나 노래자랑에서 지방 대표로 나갈 정도이다. 그 정도 재능으로 가정을 버린다면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깨질지 몰라도 역사를 깨지는 못할 것이다. 엄청난 투자와 희생으로 끝낼 정도이다. 간혹 가정을 돌보기 힘들만큼 심각해진 부인들을 보면 한편 애처롭다. 나도 아내와 함께 댄스 스튜디오에서 몇 주간 나간 적이 있다. 물론 창피를 면하려고 나간 것인데 곧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춤 공부를 해도 Fred Astair처럼 되기는 틀렸으니 취미로나 춤을 출 것이지 그 이상은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볼룸 댄스의 기본 스텝을 배우고 춤 레슨을 그만두었다. 내가 너무 구식이라고 반성도 했다. 내가 내 분수를 안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여튼 나는 그때 댄스 레슨을 잘 중단했다. 모든 면에서 내 분수를 넘지 않으려 노력하고 살았다. 나는 나의 자제력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핸디캡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세를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재능의 유전자가 있으면 언제인가는 내 후세들이 대신 성공할 것이고 재능은 영영 잠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출세를 못한 변명이라 여겨도 좋다. 경거망동하는 것보다 석복(惜福)하며 은연 좌중을 택하고 싶다. 너무 동양적일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동양적이라는 말은 겸손을 뜻한다. 내 동생 중에 소리를 잘하고 성대모사에 재능이 있으며 주위 사람들을 잘 웃기는 소질을 타고난 동생이 있었다. 일찍부터 시골 방송국에 나가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몇 번 방송에 나간 것이다. 그 방면의 대선배와 상의했는데 재능은 그만하면 됐는데 앞으로 나갈 길은 두 길뿐이라고 충고를 했다. 몸은 창녀처럼 가는 앞길에 내던지든지, 닥치는 대로 돈을 뿌리든지 할 각오가 없으면 그 방면으로 출세할 생각은 말라는 것이었다.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내 동생은 출세를 포기했다. 그래도 동생은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었고 모 대학 교수로서 후배들에게 창을 가르치고 지금도 주위 사람을 잘 웃기며 산다. 출세는 못했으나 자기 프라이드를 살렸고 가정주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 어느 방면에서나 최고의 자리는 모든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심리적 부담 또는 스트레스가 따르고 그 자리를 영구히 지킬 수 없는 만큼 곧 좌절감을 안게 된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변명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그런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 아내도 그 점에 나와 생각이 같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예 중의 하나로 42세의 젊은 나이로 약물 중독으로 목욕탕 혹은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인기를 쫓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간 인간의 운명을 따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예는 너무도 흔해서 더 이상 기술하고 싶지 않다.

나는 출세를 탐하지 않는 신조로 살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 일생을 산 것은 나의 복이다. 나와 같은 인생관을 가진 아내를 만난 것이 복인 것이다. 야심이 많고 탐욕스러워 배우자를 끝없이 복아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 아내와 함께 살면 출세를 좀 더 했거나 더 높은 지위와 부귀를 더 누렸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마음은 태평스럽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웅장한 저택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예도 세상에는 많다.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파도를 가르며 즐겼을 수 있었겠지만 그 즐기는 시간은 짧고 그에 따르는 유지비나 책임은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관망하는 생을 택했다. 너무 번잡한 삶을 원하지 않는데 아내와 나는 같은 생각으로 살았다. 나는 평범한 생활이 좋다. 경호원이 많이 딸릴수록 그 생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만큼 그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불편할 것이며 나는 그런 불안이 싫다. 경호원이 없이 사는 자유를 나와 아내는 선호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택했다.

평범한 삶의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국회의원 정도면 정치계에서는 출세했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어느 정부의 부처를 가도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고 맞이하고 호통을 치면 직원들이 절절매고 떠난다. 특히 지방에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한다는 것은 아니다. 절절맨다고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했을까?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권세를 부리고 호통이나 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 위세를 부리고 호통을 치고 설치는 남편 덕으로 권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평민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남편이 못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나마 늙어서 남편 구실도 못하면 차츰 남편이란 자가 미워져서 이제는 남편이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아내의 수가 늘어간다고 한다.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한때 전생의 원수가 배우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유행하더니 결혼을 거쳐 이제는 죽었으면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젊었을 때는 매력에 끌리어 결혼하고 늙어서는 차츰 매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데 그 감정이 차츰 미움으로 변하고 나아가서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할 정도로 밉다니 수 천년 유지했던 결혼이란 제도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Jihad나 회교 근본주의자들이 속한,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 구 사회의 결혼제도가 오히려 부럽다고 말하고 싶은 지경이다.

차라리 미개한 나라의 결혼제도가 나을 지도 모른다. 인간의 문화 문명이 발달했고 인도주의가 꽃을 피워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결혼제도만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없다.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은 전에도 있었다. 결혼 전과 후에 같은 배우자가 그 모습이 달라지는 예를 표현하는 말이겠지만 젊었을 때의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배우자가 늙어서 정으로 살고, 법으로 사는 변화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결혼해서 평균 18개월이면 결혼 초의 정열이 식어 권태기로 들어가며 성호르몬 농도도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기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속삭이던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을 믿는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 가장 최근에 한 사랑이 가장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누구나 믿지만 실은 그런 사랑은 흔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걸 깨닫고 순종했던 시대는 사라져 간다.

남녀 간의 사랑이 혈중 성호르몬 양에 비례하는 것은 보통이고 사랑에 관한 수식어는 시적 감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인은 못을 박았다. 간음 외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모두 알고 있으니 더 말을 앓겠다. 젊은 여성의 몸에 욕정을 느끼는 것은 잠시이고 여자는 곧 아이를 낳고 어머니로 변하며 몸은 망가진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대로 들에서 사는 작은 새들도 모성애는 강하다. 몸은 늙어가고 망가져도 어머니로서 모성애는 강하여 자식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본능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인간은 자기의 생로병을 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망가지고 추해지는 모습만 본다. 그래서 다른 꽃에 매력을 느끼고 실제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비극이 생긴다. 인생을 잘 돌아보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도처에 비극은 생기고 온전히 보존한 가정은 점점 드물어진다. 이런 비극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비극을 피하려고 결혼을 피하고 자식의 출산도 피하며, 가정을 이루려는 청춘 남녀들이 줄어든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경향이 번져갔을 뿐이다. 할리우드의 남자 배우 중에서 멀티루니처럼 여덟 번이나 배를 갈아탄 사람도 있고, 세계의 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여덟 번 남편을 바꾸었다. 그런 기록을 내고도 멀쩡한 것을 보고 이혼 재혼을 후회도 없이 예사로 하는 사람들 수도 늘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멀쩡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말로는 스스로 생로병사의 덧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결국 가는 길은 같지만 나는 그런 파란만장한 여정을 자진해서 택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종착역은 모두 같다. 누구는 짜릿한 흥분을 더 경험했고 눈물도 여러 번

흘렸으며 절망과 희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숨 가쁜 여정을 타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늙고 병들기는 그와 내가 마찬가지로 곱게 늙는 것과 추하게 늙는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나는 조용히 평온한 여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신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주는 것 없이 자꾸만 더 미워지는 감정의 가속 현상도 이해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또 맹자의 사단(四端)과 그 첫째인 측은지심(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배웠고 붓다의 자비심도 알만큼 알고 있다. 부다의 교리인 집착도 버리려고 애를 썼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 자주는 아니지만 극히 무의미한 일로 아내와 다투면 순간 서로 무척 미워진다. 지나고 보니 부부간의 싸움은 정상이다.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일인데 그 순간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은 피차 동일할 것이고 서로 남남 간이라면 일찍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말 일들이다. 아이가 사랑스러울수록 기대가 크니 더 미운 것이다. 이럴 때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손이 올라가서 휘두를 수도 옆에 물건이 있으면 집어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정 표현의 방식이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온 뒤에 갈라진 마른 땅처럼 더 굳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리와 시간만 살짝 피하는 지혜가 있다면 같이 늙어가는 터에 상대방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가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저런 인간과 몸을 섞어 나의 일생을 망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수도 있다. 모두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같이 살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딴 생각과 딴 주머니를 차고 아주 미워서 남보다 더 못한 생각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이혼 수속도 부끄럽고 번잡스러워서 빨리 배우자가 죽어 없어지길 바라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결혼이라는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만을 기다리는 부부도 있을 것이다. 실은 자기가 바라던 해방이 아니고 더 깊은 고독이 닥쳐오는 수가 더 많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져서 마치 배우자만 죽어 없어지면 결혼 전처럼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날이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고 가는 날을 재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죽기를 바라는 배우자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며 그도 나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고 이미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수십 년을 한술밥을 먹었으니 그의 오늘날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이나 인간성은 그 반이 내가 그 형성에 참여했으며 내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왜 나지 않는 것일까? 가령 내

머리를 굴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운이 좋아서 복부인 행세를 한다고 쳐도 그 재산이 정녕 다 행운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내게 덤벼들고 나의 인생을 망치도 있는 그가 원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원수를 만든 장본인인 나도 그 책임이 반은 있는 것이다. 내가 그를 배우자로 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할지는 몰라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Karma이다. 혹시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도 그 책임의 반은 내게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죄를 상대방에게 몰아치는 처사의 결점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 애인과 지금의 현재 배우자를 비교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옛날 애인과의 인과의 삶은 현실이 아니고 환상일 뿐이다. 환상에서 얻은 결혼으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꿈은 속히 깨어날수록 자신을 위하여 좋다. 지금의 배우자도 연애시절에는 옛날 애인처럼 다정했고 친절했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詩)의 세계와 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통하여 인연을 맺었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Karma는 내 일부가 되어있고 죽어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생각은 물론 불교적이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설정해 놓고 상상해 보자. 그런 배우자도 변하는 현실처럼 인간은 항상 변해서 아침과 밤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다. 또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태도나 표현이 변할 수밖에 없다. 또 본인의 기분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사람은 춘하추동 절기에 따라 변하고 생로병사의 법칙에 따라 변하니 설정한 이상형의 배우자가 옛날 애인이었다고 해도 이 자연의 법에 의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그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연애를 할 때 애인을 만나러 가려면 우선 목욕으로 몸을 정결히 했고 화장으로 머리모양으로 옷매무새도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였는가. 꿈속의 그는 현실이 아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그렇게 공들여 만나지는 않으면서 똑같은 대우를 밤낮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욕심이다. 자기의 욕심을 우선 타해야 한다. 부다는 미인이라도 아무렇게나 벌리고 잠든 여인이 입에 침을 흘리고 코를 고는 자태를 묘사했다. 밤낮으로 데이트할 때의 여성의 예쁜 모습이 항상 있을 수는 없다. 순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곧 사라진다. 반야경에서 읽은 불후불정(不後不淨)이란 말은 도를 깨친 사람이 보는 세계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말이니 처음부터 인간이 더럽다고나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 점에 있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데이트하던 시절의 애인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은 환상일 뿐이다. 환상은 진실이 아니다.

사후에 무엇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후의 세계는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종교도 그 때문에 생겼다. 다시 말하면 사후의 세계를 인간이 안다면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윤회도 모두가 인간이 사후세계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겼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여 정보의 세계로 들어갔고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여 극히 조그마한 우주의 구석에 떠있으며 태양계가 언제인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인류가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다. 즉 인간은 환상과 착각에 벗어날 수가 없다.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부의 인연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창조주인 주의 아들과 딸일 뿐이다. 죽어 보지 못해서 아무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

이 수필은 아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 나 자신이 혼미스럽다.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갈 뿐이다. 2015년 한국 여성의 신생아 생성률이 1,2로 세계에서 최하에 속하고 지금대로 가면 50년 후면 한국 민족은 지상에서 사라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추세도 변할 줄로 믿는다. 참고로 출산율이 6 이상인 국가도 많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저개발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런 사회문제를 다루려면 그 문제만으로도 한 편의 수필이 되겠고 내 전문 분야도 아닌데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육이오 전쟁 후 평균 국민소득이 백 불이나 이백 불이나 하는 통계도 없었던 시절에도 청춘은 있었고 사랑을 했으며 결혼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웠다. 내가 바로 그랬다. 찌질하게 가난하여 콩나물국으로 애들을 키웠어도 그때에 유치원이 있기는 했지만 엄두도 못 냈어도 아이들이 다 잘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요즘은 부부가 좋은 집부터 장만하고 신혼여행도 내가 이름이나 겨우 들어본 명승지로 가야만 하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면 내 시대에는 생각을 못 하던 곳에 네댓 살부터 배우러 보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좋은 시대에 살았구나 싶다. 그런 걱정이 없이 살았으니 말이다. 일류 요리점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몇 캐럿 다이아를 끼었다고 과시하면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대로 먹고 옷은 남루한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했다. 사는데 불만이 있어도 누구나 그 정도의 불만은 있겠거니 생각하고 혁명이란 어려운 단어보다는 내 팔자가 고작 그뿐인가 보다 여기고 살았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어느 국가나 그만한 역사상의 파동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고 견디어 냈고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경험을 하면서도 김일성 정권 하에서보다는

자유가 있는 정치라고 믿었다. 지금까지도 자유가 없는 북쪽 3김씨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웃이 어떻게 살던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정권처럼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가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나와 생각이 같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았던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마도 아내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게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온 인생관이 꼭 옳았다고만 주장하지는 않겠으며 나와 한 몸이 되어 일생을 보낸 아내의 인생도 비록 내게는 참 좋았지만 올바른 인생이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쓰고 보니 결국 나는 불출이가 되었다. 아내 자랑을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 딴 도리가 없었다. 지금 수 십억의 회교인들을 위시하여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많으나 그렇다고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남권 시대에서 여권 시대로 넘어가는 세계 문화의 변천 초기에서부터 문화 변천의 한복판에 서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나의 경험을 나의 부부생활과 맞물리어 글로 남긴다. 아내의 경험까지 써서 모아서 아내 대신에 내가 썼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계속 존재할지 또 남녀가 결혼하는 현 제도가 계속 유지할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처럼 아이를 낳고 길러서 생물학적 의무를 다해 나아갈지 하는 인류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핵 전쟁을 불러오고 그의 말대로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니 그것으로 인류는 종말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다.

- 끝

<편집자주>

임낙중 선생님이 가늘고 깨끗한 육필로 쓰신 73면의 원고이다. 2023년 9월에 작고하시기 전 쓴 이 방대한 양의 원고 책을 사모님께서 이틀(15일) 전에 버지니아 신년모임 때에 갖고 오셨다. 독자들도 잘 기억하시다시피 임 선생님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수필을 시계탑에 올렸고 수필집을 여러 권 발간하셨던 분이다. 유고집같은 이 귀한 글을 찾아서 손수 가지고 오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